

‘지반 안정성’ 평가항목 결국 무시 광주시 “과학벨트 심사 수용 불가”

호남권유치위 긴급 소집 강력 항의키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분의 평가가 단순히 ‘적격-부적격’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위해선 지반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어야 함에도, 평가항목 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무시됐기 때문이다. 광

주시는 과학벨트호남권유치위원회를 긴급 소집, 이 같은 결정에 강력 항의키로 했으며, ‘지반의 안정성’ 부분이 세부 심사평가 항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벨트추진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한 곳에 두는 ‘통합배치’ 원칙과 함께 입지요건별 세부 심사항목을 확정했다.

과학벨트위는 이날 발표한 세부 심사항목 가운데 ‘지반의 안정성과 재

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지반 및 재해 안전성’ 부분은 일정 수준의 필요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며,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 배경설명을 덧붙였다.

광주시는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지반의 안전성 및 재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별도의 평가지표를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으로만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12일 지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세부지표를 만들어 주도록 과학벨트기획단에 공문까지 제출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해 ‘광주시의 유치작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4일 오후 서울 국회기술평가관에서 과학벨트호남권유치위원회를 긴급 소집, 과학벨트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평가지표를 수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특성상 지반의 안정성과 부지확보의 중요성은 오히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과학벨트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과학벨트 입지 요건 가운데 지반의 안전성을 배제한 심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30만원 때문에...조합장 재선거

年 185만원 의무 물품 구매 모자라 자격 상실 광주대촌농협장 5천만원 들여 내달 3일 보선

30만원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 대촌농협의 일이다. 조합장이 불법이냐 탈법, 횡령 등 비위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다. 조합장으로서 농협이 판매하는 물품을 일정정도 구매해야 하는데 30만원어치를 덜 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대촌농협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촌농협 전모 전 조합장이 ‘농협법 정관’ 제56조를 어겨 조합장 자격을 상실, 다음달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농협법 정관 제56조는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

며, 대촌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경제사업(비료·농약·농자재 등) 실적 연 평균금액 185만원 이상을 매일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연 평균금액이 부족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조합장이 모범을 보여 조합을 이용하라는 취지”라며 “전체 조합원이 이용한 평균금액의 20% 규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조합장이라면 구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간 경제사업 이용한 연 평균금액이 155만원으로 30만원이 모자라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이로 인해 대촌농협은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촌농협의 경우 선거관리경비가 5000만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30만원어치의 농약·비료 등을 사지 않아 5000만원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전 전 조합장은 “정관이 잘못됐다.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1원만 부족해도 자격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정관 개정을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촌농협 보궐선거는 다음달 3일 치러진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22일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헤이그의 간선도로에 설치된 노면전철의 바닥에는 잔디를 깔려 있다. 이로 인해 도시전체에 녹색띠가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노면전철·자전거로 도심 교통난 해결

헤이그의 역발상... 불편 참으니 쾌적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헤이그=글·사진 윤현석기자

간소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는 노면전철(tram)과 자전거를 통해 도시 교통난을 해소한 생태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절감 등 정책적인 목표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물론 가로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최적화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들 시설을 받아들여도록 한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광주시 역시 이를 통해 도시 자체를 생태 녹색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과 6일 찾은 헤이그와 암

스테르담, 로테르담의 도로 중심은 노면전철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선에서 제외된 곳은 가로를 삼거나 녹지를 조성했다. 차선은 그 양쪽에 위치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있지만, 차도와 보도의 폭이 자전거도로보다 좁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좁은 도로에서는 신호 시스템을 통해 승차차 시 승객 안전을 위해 차량은 반드시 노면전철 뒤에 머물도록 했다.

도심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헤이그의 노면전철은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치된다. 특히 노면전철은 각 노선마다 디자인을 달리해 도시의 상징물이 되고 간선도로의 경우 바닥에 잔디를 조성해 도심의 녹색띠로 자리하고 있다. 또 구간마다

요금이 다르지만 7.75유로(한화 1만 2600원)를 내면 8차례 갈아탈 수 있어 저렴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택시기사 사커(52)씨는 “노면전철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신호체계도 너무 복잡하지만 자가용 이용자들이 크게 줄면서 차량통행 속도는 차이가 없다”며 “관객들도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객차 3~5대를 연결한 노면전철은 출근시간대 한 차례 운행에 최대 300여 명을 소화하며, 설치비용면에서도 지하철이나 지상고가 경전철의 5분의 1 미만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37) 박사는 “광주시의 경우 단순히 도시철도 2호선을 설치한다는 단편적인 사고

보다는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면전철이 도심교통을 처리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장단점과 철저한 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0km에 이르는 헤이그의 자전거도로 역시 그 폭이 1.5m 이상으로 공공 및 민간시설에 주차장을 갖추고 별도의 신호등을 통해 연속성을 만족시켜주면서 수송분담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도심의 중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헤이그는 이처럼 노면전철과 자전거를 양축으로 생태 녹색도시, 친환경도시로서 그 명성을 쌓고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과열·혼탁선거구’ 지정 전남 재보선 평균 경쟁률 4대1

4·27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3일 마감되면서 14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읍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4면)

선관위는 과열이 우려되는 10개 재보선 선거구의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순은 선거 혼탁도가 평균(13.9%)

보다 2배 이상 높은 28.7%에 달했고, 성남 분당은은 비방·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김해읍은 불공정 보도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관위는 화순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고, 성남 분당과 경남 김해읍에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과 13일 이틀간 4·2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선거구 4곳에서 모두 16명이 등록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아권 단일후보인 민노당 김선홍 후보와 무소속 구희승·조순우·박성철·허상만·허신행·김경재 후보 등 총 7명이 등록했다. 화순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홍익식 후보와 무소속 임호경, 민주노동당 백만수,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전남도의원 보궐선거(화순군 제2선거구)에는 2명, 목포시의원 재선거(라 선거구)에는 3명이 각각 후보 등록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njoy the Quality

남양

후각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이 든 커피?

“모를땐 그냥 먹었지만 프림을 알면 바꾼다!”

유익한 프림 속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프린치카페 카제믹스-커피, 이제 프림을 보고 고르든 틀림없습니다!’

카제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기술 국내처음 남양이 특허출원합니다

*우유가 좋다는 건 당연한 상식. 그렇다면 프림에도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자! 그래서 남양이 프림을 바꿨습니다. 우유 및 내는 프림 속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어 만든 남양 ‘프린치카페 카제믹스-커피’와 내 가족이 마실 커피, 이제 당나라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프린치카페 카제믹스’로 바꿔주세요!

가격의 차이보다 커피의 차이로 선택하세요!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이 든 기존 제품보다 조금 비싸지만 무지방 우유를 넣으면 당면 남양 ‘프린치카페 카제믹스-커피’입니다. 이음질도 드셔보시고 100% 원재료장을 살펴주세요.

아라비카 원두 100% 골드라벨

특별까지 들어가 좋은 커피! 커피의 유혹 FRENCH CAFE 프린치카페 카제믹스

www.namyang2.com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